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

조성윤*

<차례>

- I. 들어가는 말
- II. 이어도 이미지의 형성과정
- III. 이어도 이미지의 확산
- IV. 생활 속의 이어도 이미지와 그 변화
- V. 맺음말

국문요약

오늘날 제주도민들은 이어도 하면 적어도 그것이 제주도 바깥 어딘가에 있는 환상의 섬이자 낙원이며, 동시에 제주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어도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어도가 환상의 섬이지만, 동시에 도민들의 의식 속에서 사회적 실재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로 작용하고 있다. 이어도가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것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꿈과 소망을 담은 이상적인 세계이기 때문이다. 즉 이어도는 제주도 주민들의 집합적으로 공유하는 기억으로서, 현실의 한계를 확인하고, 동시에 넘어서도록 하는 상징세계로서, 이미 제주도민의 의식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제주도민들의 관념 속에 이어도라는 섬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승되어 왔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어도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갖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신문 등 각종 언론에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어도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되어 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이미지가 작동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신문 기사와 잡지 기사 검색과 함께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이어도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이어도를 단체 명, 또는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었다.

가장 잘 알려진 문학작품은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이다. 이 소설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뒤 이와 비슷한 소설이 나오고, 시들도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평론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어도라는 이미지를 대중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어도 이미지는 시와 희곡은 물론, 동화, 텔레비전 특집물 등으로 재생산되어왔다.

이어도를 환상의 섬, 파라다이스로 관념화한 것은 근대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에 힘입어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삶이 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환상의 섬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때문에 환상의 섬으로서의 이어도 이미지는 한국 사람들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되었다. 게다가 주목할 것은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이어도 이미지는 대부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중매체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되고 주입된 것이다.

오늘날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이어도는 제주도 남방에 실재하는 섬이며, 그 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놓은 곳이다. 이제 이어도는 실재하는 섬이 되었다. 제주도민들이 그 섬을 찾아내서 현실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원 민족주의에 의해 해양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탐사 결과 찾아낸 섬의 이름을 그렇게 이어도라고 붙이게 된 것이다. 제주도민들에게 더 이상 이어도를 환상의 섬으로 부르거나 꿈꾸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제주도, 제주도 주민, 이어도, 낙원, 이상향, 집합적 기억,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I. 시작하는 말

이어도라는 이름이 요즘처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적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소코트라 암초 위에 세워 놓은 이어도 해양 과학기지 때문이며, 또한 이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심심치 않게 신문에 보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제주도에서는 이어도라는 이름이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¹⁾ 제주도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에 이어도라는 명칭이 나타나며, 관련된 몇 가지 설화가 제주도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제주도 민요를 정리하면서 이어도에 관해 논의했고, 관련 설화도 찾아냈다(다카하시 토오루, 1968; 김영돈, 1985; 김영돈, 2002). 한편 소설가, 시인들이 이어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작품화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미지가 덧붙여졌다.

오늘날 제주도민들은 이어도라고 하면 적어도 그것이 제주도 바깥 어딘가에 있는 환상의 섬이자 낙원이며, 동시에 제주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어도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어도가 환상의 섬이지만, 동시에 도민들의 의식 속에서 사회적 실재(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점이다. 이어도가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꿈과 소망을 담은 이상적인 세계이기 때문이다. 즉 이어도는 제주도 주민들의 공유하는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으로서, 현실의 한계를 확인하고, 동시에 넘어서도록 하는 상징세계로서, 이미 제주도민의 의식의

1) 이어도는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섬 명칭이다. 그러나 자료에 따라서 '이어도', 또는 이허도(離虛島) 등으로 표기가 달라지며, 때로는 파랑도(波浪島)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이어도'로 통일하기로 한다. 다만 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다른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실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²⁾ 그러나 기존 학계의 연구에서는 이어도는 주로 구비문학 분야와 문학 작품 분석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도민들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이어도 이미지에 관한 체계적인 정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오늘날 제주도민들의 관념 속에 이어도라는 섬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승되어 왔는지를 조사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현대 제주도민들의 의식 속에서 사회적 실재로 작용하는 이어도 이미지를 파악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정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민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도민들 사이에 전승되고 있는 민요와 설화의 내용 및 전승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도에 관한 기존의 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 문학작품 속에서 이어도를 주제로 내세운 작품이 다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이다. 이 작품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는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있다. 한편 이어도 이미지는 시와 희곡은 물론, 동화, 텔레비전 특집물 등으로 재생산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의 작품성이 아닌,

2) 상징세계는 개인의 일대기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질서를 포괄하는(sheltering canopies) 것이다. 상징세계는 또한 사회적 현실의 한계성을 제공한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견지에서 적합한 것의 한계를 정해준다. 상징세계는 또한 역사에 질서를 부여한다. 그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하는 결합력 있는 조화 속에서 모든 집합적인 사건들의 위치를 지정한다. 상징세계는 집합체 속에서 사회화된 모든 개인들에 의해 공유된 “기억”을 만들어 내며, 동시에 개인의 행동의 설계를 위한 준거들을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상징세계는 의미 있는 총체 속에서 선조와 후손을 연결시키고, 개인 존재의 한계를 초월하며 개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실을 한다 (Berger, P. L. and Luckmann, T., 1977).

이어도 이미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어도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이어도의 이미지를 조사하는 유효한 방법 중 하나는 도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이다. 하지만 이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조사로 들어가기 어렵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예비 작업으로 그동안 신문 등 각종 언론에 이어도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되어 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이미지가 작동해왔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신문 자료에 등장하는 이어도 용어의 사용 사례를 부분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현실 생활 속에서 이어도 이미지를 재생산해온 다양한 작품들과 대중매체(신문, 잡지)이다. 신문 자료는 제주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중에서 오래된 신문으로 ‘제주일보’(구 ‘제주신문’)을 선택하였다. 2000년대 이후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집하기가 쉬웠지만, 그 이전의 신문 기사는 직접 신문을 뒤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³⁾ 잡지는 오래 동안 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광 제주’ ‘월간 제주’ 등을 전수 검색하였다.

이러한 신문 기사와 잡지 기사 검색과 함께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이어도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이어도를 단체 명, 또는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다. 예를 들면, 30년

3) 그 이전의 신문으로 『濟州新報』(1947. 1. 1.-1948. 4. 20.)와 1950년대에 간행된 제주신문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시간이 부족하여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검색하지 못했다. 차후에 보완할 예정이다.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극단 이어도, 이어도 예술단체, 이어도 도서관은 물론 식당, 뷔페 등 현재 전화번호부를 통해 검색 가능한 곳을 정리하였다. 여러 가지 잡다한 자료까지 모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어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미지로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II. 이어도 이미지의 형성과정

이어도라는 명칭이 제주도민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민요를 통해서이다. 오늘날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전통 민요인 ‘해녀 노 젓는 소리’는 그 명칭보다도 오히려 ‘이어도 사나’라는 후렴구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요를 부르던 제주도민들이 과연 이어도를 하나의 섬으로 인식했었는지에 관해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1920년대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라는 학자가 제주도 민요를 채집했다. 그는 일제시기 조선유학사와 불교사 등 조선 사상사 분야의 연구로 유명한데, 민요에도 관심을 기울여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가 민요 연구를 위해서 제주를 처음 방문한 것은 1929년이었는데, 그 뒤에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을 썼다(高橋亨, 1933). 그리고는 정리한 것을 갖고 일본으로 돌아가 해방 후에 출간했는데, 그 책이 바로 『제주도의 민요(濟州島の民謠)』(1968)이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어도에 관한 민요를 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제주도의 민요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이에 관한 해설을 붙여 놓았는데, 그 중에서 이어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섬의 맷돌·방아노래 곡조는 실로 쓰고 시다. 여자들의 마음속에 응결된 고민, 원망을 노래를 빌어서 토로한 것이 대개이다. 어찌해서 섬의 여자들 노래의 곡조가 이렇게 쓰고 시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전설적인 설명이 한 가지 있다. 섬의 노래는 맷돌·방아에도, 뱃노래에도, 혹은 농요, 기타의 노래에도 노래를 부르고 끝에 반드시 소위, 전렴, 후렴이라고 부르는 이여도(또 이허도라고도 한다)라는 후렴구가 붙고 있다. 한자어로는 離虛島이고 쓴다. 이 이허도는 공상의 섬으로 제주도와 강남, 즉 남지나해의 중앙에 존재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여기를 지나는 배들은 이 근처에 오면 우선 안심된다는 곳이다. 그래서 섬사람들은 떠나는 배를 향해서는 이허도까지 무사하도록 기원하기도 했다. 도 나간 배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여도에라도 가서 재난은 면하겠지 하며 슬퍼했다. 노래에

강남 가건 해남을 보라
 이여島가 반이엿 혼다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말앙 가면 늪이나 웃나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이여 흐면 나 눈물 난다

이 이허도의 후렴은 누군가에 의해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고려시대 충렬왕 3년 섬이 원의 지배하에 있을 때, 원의 목민관이 와서 제주를 통치할 때부터 원 말까지 제주는 해마다 소와, 말 소고기, 기타의 토산물을 중국에 공물로 헌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공물선은 산둥 남쪽의 강남으로 향해서 섬의 서북인 대정 모슬포에서 출발했다.

어느 무렵인지는 모르지만, 강씨라는 선원 우두머리가 있었다. 공물선은 그 때마다 수척의 큰 배에 공물을 가득 실어 황해를 횡단하게 했다. 그런데 공물선은 많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 항로 중간에 ‘이허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하는 꿈같은 이야기가 섬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있었다. 어느 해 강씨 자신이 공물선에 타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돌아

오지 못했다.

강씨에게는 노처가 있었다. 그녀는 슬퍼서 참을 수 없었는데, “아아 이허도야 이허도”로 시작해서 마치는 노래를 만들어 그것을 불렀다. 그 곡조는 슬프고 처참하였다. 같은 탄식을 대정의 과부들은 들어서 동감하였다. 그 외의 부인들 모두 동감하였다. 곧 전도에 확대되었다. 중국과의 교통은 끊어져도 뱃사람이 많던 섬의 부인들은 역시 이 노래를 동감하였다. 이렇게 근본의 의미는 이미 잊혔으나, 지금에까지 “이허도야, 이허도”는 그녀들의 노래 앞이나 끝에 두어 노래한다. 슬픈 기원 때문에 곡조의 아름다움은 처량하고 쓴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가사의 의미를 모르는 육지 사람들이 한 번 들어도 쓰고 신 까닭은 절절이 슬픔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600년이 지난 지금 더욱 비참한 곡조가 이 문구의 의미를 잊은 섬 여자들에게, 그녀들의 노래에서 모티브를 이루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그녀들의 마음이 그것에 동조하고 공명하기 때문이다. …(좌혜경, 1995: 42-44쪽).

다카하시는 1920년대에 제주도에서 수집한 민요인 맷돌노래, 방아노래, 뱃노래, 농요(農謠)에 ‘이허도 사나’라는 후렴구가 붙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된 전설까지 소개하였다. 그가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들을 소개받고,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920년대 제주사회에는 다양한 민요가 남아 있었으며, 1923년의 강봉옥(康奉玉)과 1936년의 금릉인(金陵人)이 조사한 제주도 민요에 대한 글에도 다카하시가 조사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볼 때, 이허도와 관련된 전설이 제주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음은 분명하다(康奉玉, 1923; 金陵人, 1936). 나는 이 다카하시의 소개와 설명이야말로 이허도에 관한 그 이후의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가 소개한 내용은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이허도에 관한 민요와 관련 설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으며, 후대 학자들

은 물론 문학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뒤 김영돈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주도 민요가 연구되었는데, 이들 역시 이어도와 관련된 민요와 관련 전설에 크게 주목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다카하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된다(김영돈, 2002).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부정된다. 최근에는 김진하의 민요의 후렴구에 나오는 이어도 싸나는 사실은 ‘이어사’라는 후렴에 지나지 않으며, 이어도라고 할 때의 ‘도’는 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하는

제주민요에 이처럼 보편적으로 붙은 후렴인 이어도가 단 하나의 전설로 수렴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한 개인의 노래가 모든 민요 가락의 발생기원이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제주섬의 옛사람들이 “이허도”라는 어려운 한자 교양을 염두에 두고 그 섬의 이름을 구태여 불러야했을 이유가 있는가. 다카하시의 주장대로라면 이어도 후렴의 여러 변이형들인 “이여 이여”, “이여싸 이여싸”, “이여도흥 이여도흥” 등은 모두 이허도(離虛島)에 대한 무지의 소산인 셈이다. 이런 다카하시의 주장은 민중의 지혜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도 후렴의 보편성을 한 개인의 창작으로 보는 견해는 집단적 창작의 산물인 민요의 성격과 배치된다(김진하, 2006: 38-39쪽).

이어도 전설이 생겨난 것은 근세의 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일제 강점기 무렵에는 몇몇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고, 특히 지식인들에게도 알려져서 당시에 일본어로 문학을 하던 이시형이나 김이옥이 작품의 소재로 삼을 만큼 주요한 관심을 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어도 전설이 민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지식인들에 의하여 빠르게 수용된 후 근대적 문학양식에 힘입어 거꾸로 민중의 세계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김진하, 2006: 55-56쪽).

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민요의 발생과 확산 양식을 염두에 둘 때 이어도와 관련한 민요는 결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개인 창작물이라고 한 이어도에 관한 전설도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김진하는 이어도를 제주도민들이 환상의 섬으로 받아들인 것은 나중에 근대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어도가 지리적 공간적 실재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는 주장은 김영돈에 이어 김진하에게서 본격화된 셈인데, 아직은 그들의 결론을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김영돈은 물론이고 김진하도 다카하시가 민요의 후렴구에 나오는 이어도 이미지와 이어도에 관한 전설을 어떻게 조사했고, 누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는 파악하려 하지는 않았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20-30년대 조선 사회에서는 많은 지식인들이 제주도 민요를 수집하고 소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강봉옥은 ‘이어도’ 후렴구가 담긴 민요를 다카하시가 제주도 민요를 조사한 시점보다 빠른 1923년에 소개한바 있다. 그는 민요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離虛島는 濟州島 사람의 전설에 잇는 섬(島)입니다. 濟州島를 西南으로 風船으로 4, 5일 가면 갈 수 잇다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갔다운 사람은 업습니다. 그 섬은 바다 가운데 수평선과 가튼 平土섬이라 하며, 언제던지 雲霧로 둘러 끼고 四時長春 봄이라 하며 멀리 세상을 떠난 仙境이라구 濟州島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이올시다.”(康奉玉, 1923).

강봉옥은 이미 이어도를 제주도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이자 전설의 섬으로 소개하였다. 그 역시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카하시가 조사한 전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금릉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민요와 관련 전설을 소개하고

있었다.⁴⁾ 따라서 일본학자인 다카하시가 이허도(離虛島)라고 해석한 것을 비판한다면, 강봉옥이나 금룡인 등 다른 조선 지식인들은 어떤 조사 과정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민요와 전설을 수집 채록했는지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진성기는 대정지역에서 채록했다는 전설(진성기, 1996)과 무가 본풀이에 등장하는 여돛 할망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여도 전설을 소개하고 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중국으로 국마진상을 간다는 출항의 동기는 다카하시의 채록과 같다. 제주의 북동쪽 조천마을에 고동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해 중국으로 국마진상을 가다가 이여도에 표착하게 되었는데, 그 섬은 과부들의 섬이라서 대단한 환대를 받는다. 그러나 얼마 지나고부터 고향이 그리워서 이여도 노래를 불렀다는 것인데, 노래가사는 차례만 바뀌었을 뿐 다카하시의 노래와 같다. 그리고 진성기는 채록 일자와 구술자의 이름, 나이를 <1958년 9월 조천면 조천리 정주병 님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다(진성기, 1996: 36쪽).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 이여도 전설이 제주의 서쪽 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동쪽인 조천리에도 일정한 변이형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조천리의 전설은 고동지가 이여도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함께 따라온 “여돛할망”(진성기는 이를 이여도의 할머니라고 주석하고 있다.)을 모시는 조천리 장귀동산당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그 뿌리가 든든해 보인다.

진성기가 채록한 조천리 장귀동산 일퇴한집(이렛당)의 본풀이에는 다음과 같다.

4) “년 전 신문학 예술면에 제주도 민요에 대한 기사를 장기 연재하든 佛信者인 여인 某氏는 濟州道 민요를 무려 60여 편을 채취하였다하니 놀라운 일입니다.”(金陵人, 1936).

옛날 국만진상 바질 때
고동지영감 창옷섬에 붙떠 온
여dot할망 일퇴중즈님.
고동지영감이 물을 흔배
식거, 대국 진상을 간
오는디 강풍이 붙어
여도에 배를 붙찌
이 할망을 만났구나.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소리 존 살장귀로 여dot할망은
노래로 살고 풍류로 지내니,
“나랑 혼디 제주도도 가기
어땡허우파?”
“감스허우다.
나 살을 도렐 뉘아줍서“
고동지영감은 여dot할망광
배을 타고 수진포로 들어오라
장귀동산 좌정호고
흔들 육장 상을 받는 일퇴한집.
당므쉬 쇠할망 쇠할으방
세경태우리 거느리고
좌정흔 외퇴중즈님
제일 12월 말일 백매단속제
1월 14일 과세문안제
2월 8일 물불임제
7월 14일 마폴림제
10월 15일 시만국대제
<조천면 조천리 남무 54세 정주병 님>(진성기, 1991: 368쪽).

진성기가 채집한 이야기는 앞의 해녀들이 부르는 이어도 민요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이며, 그 내용도 대국, 곧 중국과 제주도 중간에 있는 섬 ‘여도’에서 살아 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진하는 “본풀이에 따르면 고동지영감이 여도에 배를 대었고, 거기서 만난 여인과 함께 조천 포구로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당본풀이 만으로는 ‘여도’가 ‘이어도’와 일치하는지 확증하기 어렵다. 더욱이 진성기는 이어도 전설을 구성하면서 그것이 과부들의 섬이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이 본풀이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엉뚱한 얘기가 된다.”(김진하, 2006: 44-45쪽)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 무가 사설에 이어도 노래가 덧붙을 만한 맥락이 보이지 않는다. … 이별을 서러워하는 이어도의 가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존 이어도 이미지를 형성했던 민요들과 이질적인 내용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김진하가 지적한대로 진성기의 자료 수집과 해석 과정에는 불분명한 상태로 수집되거나,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놓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진성기의 채집이 민요가 아닌 본풀이에 이어도와 관련된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진성기가 소개한 여똥할망 이야기는 민요에 나오는 한 서린 분위기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에 남아 있던 다른 종류의 이미지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는 다카하시는 물론 일제 시기 조선 지식인들이 제주도 곳곳에서 구전되는 민요와 전설에 관심을 갖고 제각기 조사했으며, 우리는 지금 그 결과물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녀 노래 등의 민요와 이어도에 관한 다카하시가 수집한 전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어도 전설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돌려버릴 수는 없으며, 그것 자체

도 제주도에서 구전되어오던 것으로,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어쩌면 민요와는 직접 관련을 갖지 않는 독자적인 전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이들은 제주도 전역을 조사했다기보다는 일부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것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일부 자료가 수집되어 계속 정리되고 있지만, 그 중에 진성기의 “여도” 이야기처럼 다른 종류의 전승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제주민들 사이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 연구자들이 게을러 제대로 민요나 본풀이, 설화를 수집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어도의 실체에 관한 논의는 자료 수집과 함께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Ⅲ. 이어도 이미지의 확산

근대적 학문이 시작된 일제시기에 지식인들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이어도에 관한 이미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어도 이미지는 해방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이어도를 환상의 섬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소설가들이었다. 이어도를 소재로 한 소설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김정환의 소설 『월광환』(1940)이며, 그 뒤를 이어 나온 것이 이시형의 『서도』인데, 이 작품은 “1944년 해방 직전에 제주농업학교 교사로 있던 이시형이 일본어로 발표한 작품이다. 그는 전해오는 민요와 전설을 스스로 개작해서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이어도’와 결부시켜 작품화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이어

도'를 제주도 동쪽에 있고, 어부들이 폭풍우를 만나면 가는 곳이며, 용궁을 방불케 하는 극락의 세계로 한 번 가면 돌아오기를 잊어버리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영화, 1996: 52쪽)

이시형이 어떤 경위로 민요와 전설을 알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이어도에 관한 민요와 전설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어도를 제주도 동쪽에 실재하는 섬이면서 동시에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상 낙원으로 묘사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새로 그려낸 이미지이다. 이에 관해 김영화는 “이시형은 사후 세계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그 사후 세계가 절망적인 곳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이상향으로 설정했다. 저승으로 간 남편이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갔기를 바라는 제주 여인들의 마음 속 깊은 소망을 읽어내고, 이여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점이 민요나 전설과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김영화, 1996: 52-53쪽).

그 뒤 계속해서 이어도에 관한 이미지를 제주도민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제주도민이 아니라 이른바 “육지” 문학인들이었다. 1960년에 정한숙이 『IYEU도』를 발표했다.⁵⁾ 그 뒤 제주에서 3년 동안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은(高銀)이 『제주도』를 발표했는데, 그는 이 책에서 다카하시 이래로 여러 지식인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이 그리는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다(高銀, 1976). 그리고 이청준이 소설 ‘이어도’를 발표한다.

이시영, 정한숙의 소설 및 고은의 저작과는 달리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는 제주에서의 이어도 이미지 재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작품이다. 현재까지 나온 이어도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학술 논문의

5) 이 소설은 『古家:鄭漢淑 代表 中篇小說選』(도서출판 동지, 1991)에 실려 있다.

대부분은 이청준 소설을 분석한 국문학계의 연구자들에 의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申熙天, 1985; 안경숙, 1987; 張良守, 1993; 최혜실, 1994; 李相雨, 2003; 박미란, 2004; 金貞兒, 2004; 崔珠英, 2005; 정모라, 2006; 이정원, 2007).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이어도 이미지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제주의 전통 민요로부터 받은 영향보다도 오히려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로부터 받은 영향이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이어도 이미지가 과연 전통적인 민요와 설화를 통해서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이청준의 소설로부터 형성된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설에는 파랑도 탐사대가 나온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이어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상상해 왔는지를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그가 만들어낸 이어도 이미지는 제주도민들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며, 제주도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어딘가에 존재하는 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제주도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환상의 이미지일 수도 있다.

이 소설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뒤 이와 비슷한 소설이 나오고, 시들도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평론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어도라는 이미지를 대중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청준의 소설을 대중화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및 극화였다. 1977년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 ‘이어도’가 제작되었으며(제주일보, 1977. 5. 12.)⁶⁾, 이어서 KBS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제주전설을 활용한 ‘사굴’·‘산방덕’·‘이어도’ 등 3편이 제작되었는데, 그 중 ‘이어도’편은 60분이었던 다른 작품과 달리 90분으로

6) 동이수출 영화사 제작, 김기영 감독. 이 영화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출품작으로 유명하다.

편성된 특집이었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고 당시 담당 PD가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982년에는 KBS 텔레비전 TV문학관 제작팀이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를 극으로 만들었다(제주일보, 1982. 11. 12.). 이처럼 소설이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로 여러 차례 방영되면서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는 이어도 이미지의 대중적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이어도라는 명칭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도 여러 방송사에서 이청준의 이어도를 반복해서 방영했는데, 가장 최근 것으로 2001년 KBS TV 문학관 걸작선의 '현대작가 10선'에서 다시 '이어도'라는 작품을 제작한 바 있다.

한편 제주에 거주하는 시인들도 '이어도 사나'라는 후렴을 이용하거나, 이어도 이미지를 이용한 시를 쓰고 있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이청준의 '이어도'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제주 시인들은 이어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저기 또 하나의 世界
밤바다 불기둥 세우며

이어도 하라 ...
이어도 하라 ...

옆구리 저리며
우리네 祖上

가슴으로 소리하여
예나, 지금도
저기 가난한 세계

이어도 하라 ...

이어도 하라 ...

밤새

깃폭 하나 없는 木船

노 휘저어

번지는 光芒 속에

우뚝 멈추는

울음 그득한 소리

이어도 하라 ...

이어도 하라 ...

이어도 하라 ...

1970년대부터 민요의 후렴인 ‘이어도 하라’를 이용하면서 시를 쓴 서학범의 경우가 나타나며, 1976년의 이용상 시조 시인의 ‘이어도 처녀’에서 보듯이 이어도를 제주도의 환상적인 이미지로 바꾸면서 이상화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1981년에 발표된 강문규의 시 ‘잊혀지는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혹, 유채꽃이

천상의 울음같은 光彩로 피고 지는

그런 땅을 아시는 지요.

물결도 곱고

산도 수려해

한 때의 異邦人들은 즐겁다 하지만
저쪽 동네에 가면
어디서나 보이는 耽慾의 발자국

쳐다 보지 않은 그늘에나
늙은 이들이
돌발 지키는 섬

그 祖上들 완고한 아픔으로
외로운 세월 보내고
이어도를 찾아 나서더니
가엾은 아이들
祖上 묻힌 땅
方言도 팽개치고

누구 만나 찾으려는지

웰컴
웰컴

그런 잊혀지는 땅을 아시는지요.

강용준의 오돌또기 민요에 얽힌 설화와 이어도 설화를 소재로 한 ‘둥그대 당실 여도당실’이라는 희곡도 씌어졌다. 그런가 하면 1978년 ‘극단 이어도’가 창립되어 현재까지 40년 동안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1985년에는 창작무용 ‘이어도’가 발표되었으며(제주일보, 1985. 2. 12.), 2000년대로 들어서면 한얼연극영화예술원이 한얼 소극장에서 연극 ‘이어도 사나’를 공연하였다. 연극 ‘이어도 사나’는 고은의 『제주도』와

양중해, 김이옥의 시 ‘이어도’를 바탕으로 작품이 만들어졌다. 연출자 이 건동씨는 “낮과 밤으로, 밤에서 바다로 가정으로 쉴 새 없이 계속되는 노동 속에서 제주의 여인들은 그들의 꿈을 ‘이어도’라고 하는 환상의 섬을 보고 그리워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주가 고향이 아닌 외지인의 입장에서 이어도의 실타래를 풀어보기 위해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말했다(제주일보, 2002. 12. 26.). 그밖에 제주의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에 관해 『제주신문』에 실린 것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제주신문』에 나타난 이어도 관련 문학작품

연도	내용
1974. 9. 13.	讀者詩 서학범의 ‘밤, 용두암’의 후렴이 모두 “이어도 하라 이어도 하라”이다.
1976	이용상 시조시인 시조문학에 ‘이어도 처녀’가 추천됨.
1980. 5.	김용해 시집 『이어도 하라』
1981. 5. 6.	강문규의 시 ‘잊혀지는 땅’에 “... 그 조상을 완고한 아픔으로 / 외로운 세월 보내고/ 이어도를 찾아 나서더니/ .../ 그런 잊혀지는 땅을 아시는지요“
1982. 8.	양중해, ‘이어도’, 시집 『한라별곡』
1983. 6. 27.	김광협외의 제주도 새민요 이어도 사나 소개
1987. 11. 6.	『이어도의 노래』 제주아동문학협회 여섯 번째 작품집.
1989. 11. 25	讀者詩 명광운의 ‘이어도 바람’
1993. 11.	김순이, 『이어도』, 『미친 사랑의 노래』
1994. 9. 19.	박재형의 동화집 『이어도를 찾는 아이들』
1995. 8. 22	김용해 제주사투리 시집 『그리운 제주』 3부 이어도로 가는 서귀포
2003. 8. 2.	장일홍 희곡집 ‘이어도로 간 비바리’ 출간.
2004. 9. 6.	김미정 월간 한맥문학 9월호 신인상 시 부문에 ‘이어도 사랑’ 외 4편 당선.
2006. 7. 6.	채바다 동요 작품 ‘이어도를 건너’

이처럼 시는 물론 희곡, 동화, 동요 등 다양한 문학작품이 계속해서 생산되었는데, 이것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제주도 작가들에 의한

것이였다. 음악 분야에서는 1995년 문충성의 시에 곡을 붙인 조영배 교수의 창작곡 ‘이어도’가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제주일보, 1995. 5. 23.) 합창곡 이어도(문복주 시, 성수진 작곡)(제주일보, 2003. 12. 26.) 등 여러 편의 성악, 합창곡이 발표되었으며, 2004년에 국립국악원이 제주 소릿극 ‘이어도 사나’를 무대에 올렸다(제주일보, 2004. 11. 23.).

한편 민요 ‘이어도 사나’가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제주를 대표하는 민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해마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합창제나 음악회에서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민요 ‘이어도 사나’를 공연하고 있다.⁷⁾ 반면 미술 분야에서는 이어도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 활동이 별로 활발하지 못했는데, 최근 오일파스텔 화가 현충언의 작품 ‘이어도’가 눈에 띄는 정도이다(제주일보, 2004. 10. 18.).

이러한 흐름 위에서 사진작가 김영갑은 오름 사진을 찍으면서, 자신의 작품에 ‘이어도’ 이미지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의 사진을 담은 에세이집 『그 섬에 내가 있었네』에는 “20여 년 동안 사진에만 몰입하며 내가 발견한 것은 ‘이어도’이다. 제주 사람들의 의식 저편에 존재하는 이어도를 나는 보았다. … 파랑새를 품안에 끌어안고도 나는 파랑새를 찾아 세상을 떠돌았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낙원이요, 내가 숨 쉬고 있는 현재가 이어도이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작품에 이어도라는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예술 분야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도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 이어도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들은 대부분 제주도 작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7) 예를 들면 “제주사대부중 합창제에서 민요 ‘이어도 사나’ 등 8곡을 불러” 『제주일보』 2003. 9. 25. / 용연야밤 선상음악회에서 제주민요 ‘이어도 사나’(테너 현행복, 제주 시립합창단, 어린이연합합창단) 공연(제주일보, 2006. 9. 5.).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작업들은 거의 대부분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가 출간되고, 이어서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로 방영된 이후부터 나타난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대부분 이어도를 제주도 전통적인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제주 작가들의 이어도 이미지가 오히려 이청준의 대중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IV. 생활 속의 이어도 이미지와 그 변화

문학작품이나 사진, 예술 등의 작품을 통해서 이어도에 관한 이미지를 생산하는 작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이어도 명칭이다. 제주도민들이 단체 또는 기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용하는 명칭 중에는 ‘제주’·‘한라’·‘탐라’ 등의 명칭이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이어도’를 자신들의 집단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일보』 기사에 등장하는 경우를 몇 가지 추려보면, ‘극단 이어도’·‘이어도민속예술단’·‘이어도환경사진연구회’·‘서귀포 이어도문화센터’처럼 문화예술단체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밖에도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어도라이온스클럽’·‘제주시 이어도 게이트볼팀’·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어도 사회봉사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어도뷔페’·‘이어도골프장’같은 상호도 있고, 중·소형 밀치 ‘건밀치’의 상호로 사용되는 ‘이어도 촌밀치’나 축산회사의 ‘이어도 한우’라는 명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표 2〉 『제주신문』에 나타난 이어도 단체 및 회사 명칭

단체 및 회사 명칭	
이어도 환경사진 연구회	2006. 5. 31.
이어도 라이온스 클럽	2006. 8. 30.
이어도 수석회	2003. 3. 5.
이어도 클럽 배드민턴 동호회	2002. 7. 20.
이어도 게이트볼 동우회	2003. 6. 20.
이어도 한우 농장	2006. 10. 23.
이어도 이업종 교류회	2006. 12. 16.
이어도 골프장	2005. 10. 21.
이어도 텍	2002. 10. 24.
이어도 정보문화센터	2002. 7. 24.
이어도 벤처 동아리	2004. 4. 3.
이어도 봉사팀(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환경도우미)	2007. 9. 3.

한편 흥미로운 것은 이어도라는 명칭이 단체나 회사의 상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이어도 투어’같은 여행상품(제주일보, 2004. 11. 17.), 전국 공예품 대전 도내 출품작 중에서 특선한 ‘이어도 기행’라는 작품으로도 사용되며, 제주시가 제정해서 해마다 시상하는 건축상 당선작 명칭에 ‘이어도상’이라는 것이 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제주넷’의 항목 중에 ‘이어도 소식’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국제컨벤션센터 야외 공간의 이름을 ‘이어도 플라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각종 건물의 공간 이름으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경우를 보면, 더 많은 사용례가 보이는데, 이 번 연구에서는 이렇게 단체 명칭 또는 상호로 이어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누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름을 정했으며, 실제로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또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명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전화 면접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단체 명칭, 회사 상호 등으로 이어도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의 반응은 “별로 특별한 생각이 없이 이름을 붙였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이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를 멋있게 부르는 이름이다.” 등이 대부분이었다. 제주도 주민들에게 이어도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대부분 이어도라는 명칭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들에게 이어도 민요와 이어도 전설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역시 대부분 그저 명칭 정도만 알지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어도 이미지에 대한 제주도민의 생각을 보여주는 조사를 참고해 보자. 김영화는 1995년 11월 하순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대학생 2,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이어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김영화, 1996). 그는 사전 예고 없이 강의 시간에 불쑥 써보라고 했다. 그 결과 중 일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주도 사람들의 이상향.
2. 잠녀나 뱃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의 섬
5. 제주도 사람들의 꿈이며, 희망인 곳. 가상의 섬
6. 제주도 사람들이 각박한 삶 속에서 동경하고 그리워했음지도 모르는 상상 속의 섬.
8. 파선되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일종의 무릉도원.
12. 낙원의 섬, 파라다이스.
18. 환상의 섬이며 이상적인 곳, 무릉도원
20. 유토피아의 성격을 가진 상상 속의 섬, 죽은 후의 이상 세계.
26. 실재하지 않는 섬.

28. 제주도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섬.
30. 빠져나올 수 없는 환상의 섬.
31. 잠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환상적으로 보게 되는 섬.
32. 어부들이 고기잡이 갔다가 난파의 위기에 이르러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환상적으로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섬.
33. 그 섬을 찾아 나선 사람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설의 섬.
34. 고깃배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된 사람들이 산다는 섬.
38. 자신의 삶과 환상이 공존하는 통합적인 섬.
39. 하늘(죽음)과 땅(삶)의 중간에 있는 세계.
40. 지옥과 같은 곳.

김영화의 이 조사는 “한 순간에 떠오르는 느낌”, 곧 이미지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상향, 유토피아, 무릉도원, 낙원, 파라디이스라고 적고 있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울러 상상의 섬, 환상의 섬, 실재하지 않는 섬으로 표현했다. 그는 응답한 학생들이 20대 초반으로 부모 세대로부터의 문화적 전승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학교교육의 비중이 커진 세대라고 설명한 다음, 이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민요와 전설, 혹은 소설과 시를 읽고 <이어도>를 이상세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요에 나오는 ‘이어, 이어...’하는 후렴구는 애초에 별 뜻이 없는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 땃돌을 돌리면서, 혹은 노를 저으면서 노동의 윤택유적 기능을 한 단순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세의 사람들에 의해 <이어도>는 상상 속의 섬이며, 저승이고, 이상향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김영화, 1996: 58쪽)고 설명하였다. 말하자면 오늘날 제주도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어도 이미지는 역사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 연극, 텔레비전 드라마나 특집물을 통해서 학습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어도

이미지로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이미지의 변화이다. 1984년 제주KBS가 중심이 되어 벌인 이어도 탐사에서 이어도 ‘암초’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어서 정부가 그 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을 추진하였다. 2001년 국립지리원은 명칭변경을 심의, ‘이어도’로 확정했다.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는 2003년에 완성되었다. 그 뒤부터 중국과의 영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제주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본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보류시킨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논란은 계속해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매스컴에서 다루어 특집을 편성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제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들에게 받아들여진 이어도의 이미지는 지금까지 민요와 전설을 통해서, 그리고 이청준의 소설을 통해서 받아 들여왔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구체적인 영토로서의 이미지라고 생각된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본과의 분쟁과 대비되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또 하나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 되어버린 이어도는 한국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영토 수호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체제 불안정을 해소할 방법으로 중국민족주의의 고취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에 북경 올림픽 성화가 서울에 왔을 때, 서울 한 북관에서 벌어졌던 중국 유학생들의 집단 시위와 폭력사태는 이를 잘 말해준다. 이들 유학생들은 중국의 신지식체계의 향유자이며, 이들에게 주입된 중화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은 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하늘을 찌를 태세이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세력이라면 그 어떤 세력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고, 맞서 싸우겠다는 자세를 보여주

는 것이다.⁸⁾ 이 신세대들에게는 동북공정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 재발견 과정을 거치면서 강화한 새로운 민족주의가 강력히 주입되고 있다. 만약 한중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들이 앞장서서 분쟁의 첨병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한국인들에게 이어도와 관련한 뉴스들은 큰 관심을 끌 것이 분명하며, 그럴 때 이어도는 미지의 이상 세계를 상징한다기보다는 자원민족주의의 상징물로 기능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제주도민이 갖고 있던 ‘평화로운 이상세계이자 낙원’의 이미지와 대립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이미지는 우리들을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게 만든다. 따라서 적어도 현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하나의 포인트는 이어도의 이미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은 어떤 이미지를 선호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에 관한 조사는 별도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이어도’의 이미지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이어도와 관련한 민요와 전설은 제주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왔고, 지금도 제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제주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어도 이미지는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근대 지식인들이 민요로부터 모티브를 끌어내서 제주도 주민들의 이상향

8) “거칠어진 중화주의,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 한복판이 중국인들의 폭력에 뚫렸다.” (시사저널 968호, 2008. 5. 2.)

환상의 섬 이어도를 창조해냈다. 이어도는 그 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주민의 삶의 정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어도 이미지는 주로 근대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어도는 제주도민들이 바다를 무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적어도 조선후기 제주도 주민들의 삶 속에서 바다는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삶의 터전은 아니었다. 해녀들처럼 연안에서 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은 관청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출륙 금지령이 그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전설은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간 어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말과 각종 공물을 싣고 중국으로 건너가던 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저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이어도라는 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으로 간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어도는 이승이 아닌 저승의 섬이요, 제주도민들이 고된 생활 속에서 그럭 보았을 범한 환상의 섬이고 이상 낙원인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소설가들이 형상화한 것이다. 이 소설을 읽고 있고, 영상으로 접한 오늘날의 제주지역 주민들은 조상들이 바다에 나가서 해상 활동을 하다가 많이 빠져 죽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게 만들었다.

이어도를 환상의 섬, 파라다이스로 관념화한 것은 근대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의 현란한 수사에 힘입어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삶이 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환상의 섬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때문에 환상의 섬으로서의 이어도 이미지는 한국 사람들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되었

다. 게다가 주목할 것은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이어도 이미지는 대부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중매체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되고 주입된 것이다.

이어도는 제주도민들 사이에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섬이다. 그 섬이 실재하는지, 아니면 그저 환상에 그치는지는 알 수 없다. 소코트라 락(Socotra Rock)이라고 부르는 암초를 파랑도라고 부르지, 아니면 제주도민들이 부르던 이어도라고 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은 진짜 섬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못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냥 암초무더기일 뿐인데, 여기다 섬의 명칭을 붙인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제주도민들이 이어도하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그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다.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민요와 전설이지만, 제주도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와 그 이후 생산된 시, 소설, 연극, 음악 작품 들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학생들은 제주의 전통 민요를 학습할 기회도 없고, 따라서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른다. 또한 소설을 읽거나 음악 작품을 들을 기회도 많지 않다. 따라서 민요와 전설이건, 최근의 문학예술 작품이건 간에 기존의 이어도 이미지를 제주도의 다음 세대들이 잘 알고 계승한다고 간주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주민들의 이미지는 무엇이며,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가? 오늘날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이어도는 제주도 남방에 실재하는 섬이며, 그 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놓은 곳이다. 그곳이 실제로는 수면 밑에 존재하는 암초에 지나지 않는다든가, 그곳이 중국과의 사이에 명확하게 영토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분쟁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점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어도는 실재하는 섬이 되었다.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그 섬을 찾아내서 현실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원 민족주의에 의해 해양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탐사 결과 찾아낸 섬의 이름을 그렇게 이어도라고 붙이게 된 것이다. 제주도민들에게 더 이상 이어도를 환상의 섬으로 부르거나 꿈꾸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康奉玉(1923), 『濟州島의 民謠 五十首, 맺들 가는 여자들의 주고받는 노래』, 『開闢』 第32号, 2月.
- 高銀(1976), 『濟州島-그全體像의 發見-』, 일지사.
- 金陵人(1936), 『제 고장서 듣는 民謠 情調, 濟州道 멜로디』, 『三千里』 第8卷 第8号, 8月.
- 김진하(2006), 『제주 민요의 후렴 “이어도”의 다의성과 이어도 전설에 대한 고찰』, 『耽羅文化』 제2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영갑(2004), 『그 섬에 내가 있었네』, Human & Books.
- 김영돈(1985), 『이어도와 제주도』, 『제연』, 제주도문제 연구회.
- 김영돈(2002), 『제주도민요연구(상)-자료편』, 민속苑.
- 김영돈(2002), 『제주민요에 드러난 이어도』, 『제주도 민요연구 (하)-이론편』, 민속苑.
- 김영화(1996), 『문학과 <이어도>』, 『白鹿語文』 1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 金貞兒(2004), 『이청준의 <이어도>에 나타난 ‘일탈’의 크로노토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진하, 2006, 『제주 민요의 후렴 “이어도”의 다의성과 이어도 전설에 대한 고찰』, 『耽羅文化』 제2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박미란, 2004, 『이어도, 탈존하는 실제의 섬 - 이청준의 <이어도>에서 천남석 기자의 죽음에 대한 해석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4집, 한국현대소설학회.
- 申熙天, 1985, 『이어도의 원형에 관한 연구』, 『北岳論叢』 3집, 국민대학교.
- 안경숙(1987), 『이어도』의 신화적 구조』, 『文藝創作研究』 창간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 李相雨(2003), 『이청준의 이어도 연구: 초점화와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이정원(2007), 『이청준 『이어도』의 서사담론』,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

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청준(1996), 『이어도』, 瑞音出版社.

張良守(1993), 『李清俊 中篇 <이어도>의 巫俗的 解釋』, 『새일語文論集』 6집,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새일어문학회.

정모라(2006), 『이청준의 『이어도』 서사전략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좌혜경 편저(1995), 『제주 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진성기(1996), 『제주도 전설』, 백록.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崔珠英(2005), 『이청준의 <이어도> 연구』, 全南大學校 大學院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최혜실(1994), 『<이어도> 에 나타나는 유토피아의 공간성과 시간성』, 『국어교육』 83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이시형의 『伊島』

정한숙(1991), 『古家:鄭漢淑 代表 中篇小說選』, 도서출판 등지.

高橋亨(1933), 『民謠に現はれた濟州の女』, 『朝鮮』 第212号 1月 다카하시 도루 (1968), 『제주도의 민요(濟州島의民謠)』(1968), 좌혜경 편저(1995), 『제주 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Berger, P. L. and Luckmann, T.(1977),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the Sociology of Knowledge*. Garden City, N. Y.: Doubleday.

Abstract

The Ieodo image of the Cheju islanders

Cho, Sung-Youn*

Today Cheju islanders had been accepted that Ieodo is the island of the paradise, simultaneously representative symbol of the Jeju-do. This Ieodo is not only the island of fantasy, but social existenc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operating inside of the islanders. The most important reason that Cheju islanders have been interested in Ieodo is the their own paradise which puts in a dream and a desire. Ieodo as the collective memory which the Jeju-do residents owns jointly gather, to confirm the limit of actuality, in order to pass over simultaneously, as the symbolic world, is already forming the one part of Jeju-do.

In this paper, I tried to investigate the conceptual frame of Ieodo of Cheju islanders. And I try to investigate how such image has led to the next generation. And from actual life how many have the images about Ieodo in newspaper and how the images is consumed and operates.

The most famous novel about that is the “Ieodo” written by Cheong-Jun Lee. This novel put big success back and a novel akin to this came out after that, and the poetry also overflowed. And the various criticism with which this was surrounded come out. I think it contributed to making an Ieodo image as a reality be popularized decisively. On the other hand, Ieodo image has been reproduced by assimilation (animation and juvenile) and a television special drama as well as a play with poetry.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ety, Jeju National University.

Modern intellectuals conceptualized Jeodo as a Paradise which the Cheju islanders want to go. Such image was spread with fast speed through a mass media: radio, television, movie as well as newspaper magazine. So everyone is going to share Korean people for Jeodo image as an island of an fantasy. The Jeodo image of the Cheju islanders was educated and was poured by the mass media.

Nowadays the most of the Cheju islanders understand Jeodo as a real, not just ideal. It means the image of Jeodo are changing. They can imagine the island where Ocean Research Station has been constructed on it. They believe Jeodo really exists. Cheju people's find the island and making actually by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It could not permitted they calling Jeodo to an island of an fantasy any more and dreaming any more. Because that's the island which exists actually.

Key Words

Jeju-do, Cheju islanders, Jeodo, paradise, the collective memory, Jeodo Ocean Research Station

교신 : 조성윤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E-mail : chomin@jejunu.ac.kr 전화 : 064-754-2780)

논문투고일 2011. 06. 17.

심사완료일 2011. 07. 27.

게재확정일 2011. 08. 17.